



조선인민군 제 4 집단군

사령관 정철우 소장



조선인민군 서북전선 사령관 리권우 중장, 제 4 집단군
사령관 정철우 소장.

묘지에 가본 죄로 철직당한
정철우 사령관.

한여름이 시작되자 무렵이가 시작되면서 장마철이 가까와
오고 있었다. 삼년재 끝고 계속되는 한반도 동쪽상정은
불변 부동의 진지전으로 남북군대에 지루감을 주었으나 북한
군대 총참모부는 정전 협정이 조인될 기회를 리용하여 동부전선의
분계선을 도발적으로 변동시키려고 괴상한 꾀를 꾸미고 있는데
였다. 그에 따라 각 약전 집단군 및 연합 부대장들은 신경이 예민
하게 상부명령을 기다리고 있는대였다.

바로 1953년 7월 2일 아침 10시나 되자 제4 약전군 사령관
정철우 소장에게 평양으로 부터 평코-장갈차 사령관 최교덕
공장에게서 불시의 전화가 왔다. 전화 내용은 - << 지난밤에
허가이가 불시에 도라 가셨는데, 말에 의하면, 자살이라고 하나
그것을 확증할수 없게 되었고, 왜냐하면 내가 전화콜받자
인차 허가이 사택에 도착하니 벌써 밤사이 매장하여 버렸소,
내가 전화로 이문제에 대하여 최고사령관 김일성 이에게,
사망 원인 해명위원회를, 조직할것을 제기하니 << 자살한 사건에
무슨 위원회가 필요한가? 하고 큰소리로 호통을 치는 것이었소.
그러니 이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소 >> 하였다.

최장군과 통화가 끝나자 정철우 사령관은 부판을 불러
약주 한병과. 약간의 안주를 갖으게 하고 자동차 운전수를 불러
평양으로 떠날 준비를 하게 하였다. 다음 군단참모장과 군사위원은
초청하여 자기가 평양으로 떠나니 밤늦게 까지 기달이지 말라고
부락하면서, 자기가 평양에 가게될 사면에 대하여서는 아무
말도 없이 인차 떠났다. 평양에 도착한 정사령관은 다짜-고작은
최교덕 사령관에게 찾아가 비참한 일이 벌어진 사면에 대하여
잠간 토론한 다음 정치안전부, 내무성 정부호위처 개통을 받아

나중에 허가이 사체를 어디에 묻었다는 것을 해명하고
두 사령관은 그곳으로 찾아갔다가 찾아가니 그곳은 공동묘지도
아닌 곳에 와 묻고 묘지 형태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아무런
태말도 세우지 않아 도저히 무엇이라고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서글르게 만들어 놓았다.

두 사령관은 자동차 운전수, 부관들의 방으로 그 근처 농민의
집에서 삼을 벌어들여 묘를 꼭 가지런히 한 다음 기리고
간 술한병을 묘지에 부어 놓고 자기들도 한잔씩 놓아 먹으면서
주먹으로 묘 자리를 두드리면서 기껏 울었다.
저녁 12시에 해가 기울어지자, 두 사령관은 평양에 돌아와,
최포덕 장군은 평양에 떨어지고 정철우 사령관은 자기 4군단
본부로 돌아왔다. 최포덕 장군은 아침에 허가이 사택에
갔다가 돌아온 후 중국 함민시에 가서 외반원으로 살고 있는
허가이 처 (즉 자기 딸) 니나 베베르로브나에게 전화를 걸어
저지러진 사연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특히 평양에 나오라고 하였다.
정철우 장군과 같이 자기 사위 묘지에 갔다가 온 최포덕 장군은
그래도 국가에서 제2 위에게 가는 책임적 자리에서 일하던 사람
인데 그가 죽은 원인은 아직 해명하지 않고도 인간도덕과 원리를
난폭하게 위반한 데 대하여 그대로 묵과하고 참을 수 없었다.
그러하여 그는 조선인민군 총포문 라수마예브 대장을 방문하고
이 문제에 대하여 토의하여 보려고 찾아갔으나 그가 계시지 않아
만나지 못하고 자기 사무실에 돌아와 모든 사연을 다시 한번
자세히 생각해 최고사령관 김일성 씨에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조진-조진 따러가면서, 왜 그렇게
공훈 많은 당을 위하여 공화국을 위하여 몸 바쳐 율화사건을
우리 친척도 볼 수 없게 밖으로 매장하였는가고 따지고, 이것은

이병적이며 미도덕적이라고 말하면서, 당신은 이 별마전까지도 그의 또 그의 가정하고 한짐식구처럼 살지 않았는가 고 물으면서 김일성의 지시를 나무랐다 이 말을 들은 김일성은 동화를 역제로 증판하였다.

다음으로 최장군은 홍고문을 찾으려고 그의 사택에 전화를 거니 그이가 마침 잠에 계시기에 그에게로 속히 찾아갔다.

라수마테르 장군은 최포덕 장군을 항상 존경하고 위문하였다. 홍고문은 최장군의 이야기를 아주 침착하게 들은후 최장군에게, 권고하기를 "빨뜨르 이와노위치 : 금일 밤으로 신속히 준비하여 가지고 내일 아침차로 소련으로 떠나가시오 : 라고 권한 다음

소련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금일 밤으로 빨뜨르 이와노위치에게 영국 허가증을 발급하여 주라는 " 지시를 내리었다.

홍고문은 최장군에게 "빨뜨르 이와노위치, 당신에게 정신이 있는가 고 물었다, 최장군은 그것이 무슨 질문인지 내용을 해득리 못하고 있는데 홍고문은 계속하여 말하기를 "지금 조선환경은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전시인데, 전시 법령에 의거하여 최장군을 지금 현재에도 검거할수 있지 않느냐? 검거된다음에야 김일성이 옳지, 최장군이 옳겠느냐, 그러니까 최고사령관의 명령이 나오기전에 소련 영국증을 가지고 군복을 벗고 사물을 한다음 내일 아침차로 평양을 떠나, 중국을 걸쳐 소련에 귀국해야 됩니다" 라고 하였다.

최장군은 그 지시대로 하였다. 그런데 최장군이 평양을 떠나자 김일만이 그의 딸 나나 베드로브나가 (허가이 처) 평양에 나왔다. 그는 이전처럼 여기고 최고사령관에게 면회를 간청 하였으나 김일성은 면회를 거절하였으며, 허가이 사택에는 전 가족의 짐이 있었던바 그것을 요구하니 "그것은 죽은 사람의 짐에서 전무다 불살라 태워버렸다 하고, 그러면 허가이의 부관, 윤전수, 비서, 간호원, 아들중 누구든지 종의 한명만 만나게

하여 달라고 요청하니, "어디로 다 조동되었는지 모르겠다고" 대강
 하였다 인제는 하느수없이 아버지는 (최포덕) 떠나갔으나 딸없이,
 떠나간 원인지 아직 누가 그자리에 모지 않았기에, 거기에 가서
 머무고 있으면서, 4군단 사령관 정철우장군에게 진화를 걸었다.
 정장군은 보시던 일을 중단하고 평양에 들어와서 니나 베에르르브나
 를 만나 비참한 이야기를 나누고 즉시로 니나 베에르르르브나를 모시고
 허가이 묘리에 갔었다. 니나 베에르르르브나에게 있어서 이 길은
 들도없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묘지였지만 첫번이자 마지막 길은
 이었다. 인간백정 김일성이 그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탐내며
 위협하는 사람도 없었던것만, 진짜 인민의 아버지 조만식도 죽이고
 진실한 애국자 박헌영이도 죽이고, 무정 장군, 김음장군 등등
 백만의 진실한 간부들을 죽이고 군주세습 제도를 꿈꾸며 그
왕좌를 아들 김정일에게 넘겨주려고 계획하였으나 빛이
 대판식은 못하고 악으로 돌아갔다.
 정사령관은, 자기 남편의 묘지앞에서 아주 슬프게 하염없이
 울고 있는 니나 베에르르르브나를 보면서 -- 이전에 소련 조국전쟁
 시기에 따슈 겐트루, 양기을 구역에서 허가이라고 같이 한구역에서
 허가이는 구역당 비서, 정사령관은 구역 공청회 비서 또 다음 하철칙코
 구역 "지미르르브" 공호즈 위원장으로 좌전될 당시에도 허가이의
 추천을 받았으며, 또 북한에 나갈때에도 같이 한 행배로
 나갔고, 다음 북한에 가서도 북한 공청동맹 중앙위원회 조직부장
 부위원장, 네무성 간부 학교 교장, 조선인민군 제10 방크 -
 장감차 사관장으로 머군을 대항하여 낙동강 계선, 팔공산과 추봉
 형고개까지 나가서 부산을 내려다 보면서도 미군대의 반공격과
 절대 우세한 항공대의 제압에 의하여 평북 정주 계선까지
 후퇴하여 최고사령관 김일성이론 만나 다시 지시를 받고,
 중국지원군 등과 협동작전용하며 북한을 해방 시키고 청천강

계선술 밖에서 안주, 숙천 순안을 걸쳐 평양을 해방한 다음.
계속하여 다시 서울 해방전투에 참가하고 제4군단장으로
임명된 계단-계단의 걸음은 눈물이 흥만 되어있는 악전
고투의 비라형적 용감성의 축적이면서 허가이와 최포덕
장군의 사랑과 또 영구부동적 동지애로 결합되어 있었다.
이상 세문의 관계는 인간적으로 보아 아주 깨끗하고, 건전한
누구에게나 모범이 될 만한 관계였다, 정사령관을 아무런
의심도 없이 허가이 부인 나나 베제드로브나를 도와 남련의 묘지에
가 보게 하였으나 김일성은 벌써 7월 2일에 정장군이 최장군하고
같이 허가이 묘지를 찾아볼 사건에 대하여 더욱이를 살구고 눈을
뚝 무르르고 이놈-들을 잡겠다고 이를 갖고 있었다.

1953년 3월 5일에 스탈린이 사망하자 김일성의 눈물 많이 쏟아
주면서 허가이 암살도 조작하였지만 그러나 변복을 계속 걸수는
없었다, 때문에 최포덕장군도 화를 모면하였고, 정장군도
사령관 직위에서 철직 제대 되었지만 그래도 다른 간부들에 비하
여 형한 처벌을 받고 건설위원회 건설국장으로 조동되어
1959년 까지 일하였다.

정철우 선생은 1916년 11월 13일에 원동 변경, 민해루 수이골구역,
수이골 촌에서 탄생하였다 1935년에 중학을 나온 다음 수리공으로
일하다가, 트락도르 운전사 강습을 끝하고 향촌에서 트락도르
운전수로, 조선인들의 강제이주 때까지 일하였다 다음 중아시아
우르베코스탄에 도착하자 1938년에 페르가나 사범대학에
입학하여 1941년에 졸업하였다, 사범대학을 졸업한후 다슈켄트
양기울 시에서 중학교 교원으로 일하다가, 그 학교 교장으로 일하였으며,
1943년에 다슈켄트주 하질릭구역 공산청년회 책임비서로,
다음 1944년 말부터 지머드로브 한인 콰호즈 관리위원장으로
1946년 초까지 일하다가 소련 공산당 조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새로운 건설사업에 과전되었다. 북조선에 도착한 정선생은 허가이 선생이 당을 건설하듯이 공산청년회 다음 민주청년동맹을 소련 레닌 공청회 양식으로 조직지도하였으며, 체코 수도 프라하에서 열린 국제 청년 대학생 대회에 조선민주청년동맹 대표로, 조선 청년대표단의 단장으로 참가하였으며, 다음 모스크바 전세계 평화옹호 대회에도 참가했다.

정철우 선생은 본래 그 생긴 생김이 강철같이 튼튼하다 하여 청년시절에 그를 "세멘트" 라고 변명 짓어 불렀다. 그런데 변명은 늘어 들어가실때까지 불명보다 더 인기있게 불리우곤 하였다 그래서 누구나 "세멘트" 라고 하면 - 그것이 정철우 선생에 대한 이름이군하고 더 쉽게 알곤 하였다.

그는 본래 유년 시절 부터 체육을 즐겼으며 레크나 사대에서 공부할때에는 권투선수로 우르베코 공화국 급에서는 권투시합에서 성공도 많이 경험하였다. 고강한 체질을 보유한 정선생은 사단장, 부사령관, 사령관급에서 참, 장군답게 부하들을 영솔하며 항상 승리에로 이르게 하였으며, 자기 부하를 교육 표양함에 온 배려를 들린 모범적 영장이었지만 자기 부하를 장기에 일삼은 책임성은 이런 간부도 철칙 제대 강직 시키고 사상검토에 차 넣고 처단하는것이 상수였다.

때문에 정선생은 1959년에 고향인 평壤으로 인하여 소련에서 귀환하여 타슈켄트에서 중앙당학교에 입학하여 1963년에 졸업하였다. 당학교를 졸업한 다음 우르베코수한 중앙직맹조직부장 오로 배치되어 일하다가 1963년 12월부터 비재배 국영농장 지배인으로 1969년까지 일하였으며 그후 1972년까지 삼출칙 구역 대마가공 공장 지배인으로, 다음 1972년 5월부터 우스만 유슈보트 명칭 농장 총연합 부지배인으로 계시다가 1977년 5월 19일에 공화관에 61세를 일기로 별세

하시었다. 현재 정철우 선생 부인 박 예까지리나나를
 라슈켄트 시에서 살고 있는바. 딸딸 정림마는 코스타리가
 사람에게로 출가골 가서 남아메리카 코스타리카에서 아주
 부유하게 딸 한명을 데리고 살며 둘째딸 정류씨는 라슈켄
 트 시에서 출가하여 어머니를 돌보며 잘 살고 있다.

박 예까지리나 아그버너는 재소 고려인 유가족 후원회성원
 으로 사회사업에 열성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태일같이
 조국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살고 있다.

부인 박 예까지리나 딸딸에 따라

정류씨.